

오피니언

월/요/광/장

박선정



만년필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기업 몽블랑은 매년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 상'을 시상한다.

문화기업, 문화 CEO를 찾습니다

'아트밸리'가 윤 회장의 AQ경영 아지트다. 그는 이곳을 골프장으로 만들자는 주변의 끈질긴 유혹을 물리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있는 약 6Km 길이의 산책로 곳곳에 나무와 돌로 만든 예술작품이 탄생했다. 작품을 직접 창조할 수 있는 예술가직 지수가 높은 직원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문화CEO의 경영철학이 생생히 실현되고 있는 현장인 셈이다.

울수록 돋보이게 마련이다. CEO가 직원들이 문화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문화적 마인드가 충만한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와 제품, 서비스는 결국 회사를 문화적 기업으로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

후원하고 나눌 줄 아는 문화기업은 크라운-해태제과와 같은 큰 기업에서나 가능할까. 그러나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경우를 보면 희망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모임은 1억 원 이상 기부한 고액기부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깊어가는 가을, 고단하고 팍팍한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위해 후원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문화CEO를 보고 싶다. 후원과 나눔이야말로 사회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문화력, 소프트파워가 아닌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송혜영

"판사님, 법대로 판결해 주세요.",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는 민사사건 법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이 하는 말이다.

판결보다 좋은 분쟁 해결 방법

조정재판은 2006년 전국 최초로 이곳 장흥지원에서 시험 실시한 이래 매년 두 차례 가량 실시하는데, 이번이 10번째이다. 이번 사건은 수도권에 살고 있어 노모를 모시지 못하던 장남(원고)과 시골에서 홀로 된 채 노모를 모시는 막내며느리(피고) 사이에 시골집 소유권을 놓고 생긴 분쟁이었는데, 자녀 중 누가 노모를 부양할 것인지라는 문제까지 얽혀 있는 사건이었다.

그 집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었을 뿐 노모 부양이나 그들의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 밖의 조항들은 비법률적인 것들이라고 하여 표시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사재판을 하다 보면 이 같이 법률만을 적용해 판결로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다.

기고



박양근

최근 우리 사회에는 대학 교육의 실용화 및 선취업 후학업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고졸 4년차 경력자의 임금을 대졸자 수준으로 맞추려고, 아간 대학을 증설하고 주말에 공부할 수 있는 계속교육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뿌리기술'은 원초적 경쟁력이다

한국 사회는 왜 이리도 대학 졸업장에 목매는 것일까.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씩 빼어난 소질과 재능을 갖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패한 경우를 여러 번 보아왔다. 유망하다는 화과전망에 학교들은 바빠 화과를 신설하고, 학생들은 떠나없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는 미성숙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경쟁만 치열한 불안정하긴 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었다.

한식 통달해도 한식조리기능장 되기 어려워서야

최근 한식을 세계화 하자는 노력이 정부, 관광 분야까지 확산 되고 있다. 심지어 영 부인까지 나서 도와주고 있다.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규정으로는 한식 한 품목만으로는 한식조리기능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다.

한식 외에 양식이나 중식, 일식 중 한 가지를 더 배워야 조리기능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우수한 한식 조리사들이 조리기능장 시험에서 몇 번씩이나 떨어진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한식 외에 양식이나 중식, 일식 중 한 가지를 더 배워야 조리기능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우수한 한식 조리사들이 조리기능장 시험에서 몇 번씩이나 떨어진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정부 외면하는 F1, 이제 도민의 '힘' 뿐이다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영암에서 열리는 이번 F1 대회는 전남도와 조직위원회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원활한 대회 운영과 교통 편의, 숙박시설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 비해 숙박시설이 다소 비싸고, 수많은 차량이 몰리는데 따른 주차공간 확보와 편의시설 보강 및 깔끔한 대회 운영을 주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번 F1에는 20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3일 동안 세계 3대 메인 스포츠를 시청하기 위해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된다.

'도가니 대책' 범·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지난 7일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영호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인화학교·인화원 처리,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호 '도가니'의 후폭풍으로 국민적 공분(公憤)이 커지자 부랴부랴 마련한 것이다.

한 하다.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항거 불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범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 결정·당연 퇴직 사유를 벌금형으로까지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 혐의의는 교단에서 즉각 퇴출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無等鼓

"미치광이들에게 경배를(Here's to the crazy ones), 부적응자, 반역자, 말썽꾸러기,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 그들은 규율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상(status quo)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시는 그들을 인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무시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아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끝을 맺는다. 이 외침은 잡스의 인생과도 궤를 같이 한다. 창업 첫 해인 1976년 '애플 I'에 이어 이듬해 개인용 완제품 컴퓨터 '애플 II'를, 1984년에는 컴퓨터 사용환경에 일대 혁신을 불러온 매킨토시를 내놓았다. 2007년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컴퓨터' 아이폰을, 2010년에는 아이패드를 출시했다. PC 시대의 개척자이면서 스스로 이를 파괴하고 포스트 PC시대를 연 것이다.



Table with publication info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